한마루

2023 여름 • **38**호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한마루

한마루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출하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2023년 여름 **vol.38**

발행일 2023년 8월 30일
발행처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발행인 김현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

보호치료시설효광원

www.hyokwang.or.kr

전화 042.271.7053 팩스 042.271.5775

한마루에 실린 글이나 자료를 효광원의 동의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Contents

마중물

04 교사의 글 사회복지사 김태민

효우리 이야기

06 퇴소자의 글 임○현
07 재원아동의 글 이○동
08 재원아동의 글 위○열

효광원 프로그램

10 2023년 기획사업
12 주요사업
13 집단상담

훈훈한 '톡톡'

14 국토횡단 5기 인터뷰
16 기차여행 인터뷰
18 템플스테이 소감문
20 보호자 캠프 소감문

따듯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21 후원금 내역
22 후원금 지정보고·후원방법

표지사진 _국토5기

'가온길을 찾아서'는 독도에서 시작하여 백령도까지 회기별 약 70km에 구간을 보호소년과 교사가 직접 도보하는 프로그램이다.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결여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 자세를 익힌다.

성장 일기

writer. **김태민** 사회복지사

'소진'으로 인한 선택의 갈림길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첫 직장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입사하여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정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제 삶에 '지친다', '버겁다' 등의 단어는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고요한 사무실에서 '다다닥 다다닥', '슈우웅 슈우웅' 하는 컴퓨터 키보드 소리와 인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사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보다는 서류 만들기에 급급한 제 모습을 보고 회의감을 느끼며 '소진'이라는 놈이 마음 안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형 탈모가 왔고,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덜 받고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배우자의 조언을 통해 '이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효광원의 당사자 중심이라는 큰 방향성은 저의 가치관과도 잘 맞았습니다. 면접 이후에 효광원에서는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고 첫 출근을 하며 효우리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효우리들과의 만남

문신한 아동, 덩치가 커다란 아동, 인상이 무서운 아동, 말을 험하게 하는 아동 등등…

또한 패드립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심하게는 주먹을 쓰는 상황까지 경험하다 보니 시용기간 3개월간은 '내가 여기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힘겨운 적응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며 씩씩대는 아동들은 "저 새끼가 잘못했어요", "저 새끼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저 새끼가 패드립 했어요", "죽이고 싶다", "패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아동들의 생각, 언행, 행동 등 돌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해해 보자',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나 보자'라는 신념 하나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와 효우리의 성장

어느 날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아동이 뒤를 따라오면서 저를 향해 주먹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쉐도우 복싱'을 하고 있었고 뒤를 바라본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이 아동은 입소한 지 약 1개월이 되었으며, 많은 아동이 있다 보니 저와는 대화를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아동이었습니다. 아동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아동에게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는 저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았을 때 아동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아동에게는 혹여나 나에게 요청할 것이 있거나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뒤에서 이와 같은 행동은 하지 말고 앞에서 말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동과는 잘 이야기하고 풀었지만 퇴근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과연 종사자 인권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은 며칠이 지나도록 제 머리에서 지워 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덧 잊혀질 때 즈음 그 아동은 편지를 하나 들고 저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주뼛주뼛 서 있었습니다. 아동에게 다가가 할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보자 "선생님 지난번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편지를 준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몇 번이고 사과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염치가 없어 그러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동의 편지를 읽고 '종사자 인권'까지 생각했던 제 생각에 대해 반성하였고 진심 어린 편지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은 원내 생활에 잘 적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보였던 행동이 실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 아동 또한 이번 계기로 성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동처럼 모든 아동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내기보다는 무엇인가 깨닫고 변화의 초석이 되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냈으면 합니다.

그 아동의
편지를 읽고
'종사자 인권'까지
생각했던
제 생각에 대해
반성하였고
진심 어린
편지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안녕 효우리 학습반 이끄미 임○현입니다.

추운 겨울에 입소해 이렇게 더운 여름에 퇴소하네요. 그럼 저의 길고 길었던 6개월간의 효광원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12월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판사님께 5, 6호 처분 받고 정신력이 많이 무너진 상태로 효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신입반 배정을 받고 잦은 마찰과 문제가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이완식 선생님 반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본 방 생활에 너무 빠르게 적응했는지 많은 규칙 위반을 하였습니다. 타 호실, 열외피복, 기물파손 등으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교사 참 도움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째려봤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폭행하며 부적응 상태로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제가 잘 생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잡고 규칙 위반 없이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하며 상위 성장단계인 이끄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입 멘토와 피복이라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효광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 위반을 일삼으며 공동체 분위기를 흐리고 잘 생활하지 못했던 저를 담임 선생님과 효광원 선생님들께서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시 잡았고 효광원에서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었습니다.
효광원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고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공동체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공동체 생활에서 배웠던 것들과 효광원에서의 가르침을 잘 적용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범하지 않으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격려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저처럼 방황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이겨냈고 변화되었는지 들려주고 싶습니다. 효광원에서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땠을까요? 아마 또 방황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 자책하는 삶을 계속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며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효광원에 계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효우리 들도 무사히 정상 퇴소하여 사회에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er. 임○현 퇴소자

효광원에서의 기회

안녕 효우리 도배반 바르미 이○동입니다.

저는 23년 4월 수원가정법원 강주리 판사님께 5, 6호 처분을 받고 이곳 효광원에 왔습니다. 처분을 받자 마자 "한 번만 봐주세요. 판사님!"라는 말씀을 드렸으나 판사님께서는 제게 이미 기회를 줬고 이 처분도 봐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을 가는 도중 저는 부모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효광원으로 가는 길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효광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는 말씀에 긴장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효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효광원은 심사원처럼 강압적이고 억압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방 효우리들한테 효광원에 관한 전반적인 생활과 규칙을 들으며 효광원에서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고 저는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저에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지금과 같은 동종사건과 다른 사건들도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분들이 받았던 피해와 그 외 부모님, 형사님들을 생각했을 때 판사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을 반성하고 '안 된다', '난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생각들과 고정관념을 깨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생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writer. 이○동
재원아동

그런 마음으로 입소 초기부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신입반 생활을 마친 후 본반으로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신입반 선생님께서 제가 도배반이고 담임 선생님이 노학용 선생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입 반에서 생활을 잘했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다 하셔서 본 방가서는 성장단계를 상위 단계로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면회에서 '많이 의젓해지고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듣고 나서 더 많이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 효광원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제 감정을 조절하고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효광원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며 저는 앞으로 사회의 멋진 구성원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는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

writer. 위○열 재원아동

저는 효광원에 오기 전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돈에 관한 범죄를 했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지내다 1호 쉼터 처분 받았고 쉼터 이탈로 효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여길 왔지?', '뭘 배우라는 거야?'라는 불만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본 방에 배정된 지 1주도 안 됐을 때 이탈을 시도했고, 일주일 후 어느 효우리와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말리던 효우리에 의해 쇄골이 골절되어 가방처럼 생긴 깁스를 하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저를 소환 후 지난 날에 대한 일들을 꾸짖으시며 3주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에 저와 함께 이탈을 시도했던 효우리들은 다시 이탈을 시도했고 결국 9호, 10호로 처분변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본 방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 기간 연장 2개월 재평가를 받는 등 제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담임선생님의 속을 그만 썩이고 싶었고 제 앞날 역시 두렵고 어두워짐을 느껴 정신을 차리고 생활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너무 하고 싶어 지도과와 복도를 청소하였고 그 결과 전화를 하게 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위해 청소한 것이지만 어느새 습관이 되어 주변 청소를 시작했고 덩달아 저의 안 좋았던 이미지가 좋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웃으며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우미로 성장단계가 올라가기 하루 전, 카드 게임에 연루되어 교사 참 도움과 성장단계 하락으로 재평가를 삭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재평가 2개월이었던 저는 효우미라는 성장단계로 1개월을 삭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규정상 하위 성장단계는 재평가 대상자가 아니지만 최근 생활을 잘하였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좋아져서 재평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 '본인이 한 만큼 그 대가는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관소환으로 부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판사님은 저에게 제6호 처분을 내렸지만 한 달 후 생활 태도를 보고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환을 다녀와서 저는 한심하고 바보 같은 제 모습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저는 성실히 생활하여 도우미로 성장단계가 상승하였지만, 소환을 하루 앞두고 화를 참지 못하여 책상을 내리쳐서 바르미로 자진 하락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신다면 아주 답답하실 겁니다. 돌아보며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도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저는 공동체 생활에서만큼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모습을 본 선생님들은 "생활은 잘하지만 한 번씩 재수 없게 걸리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 순례를 통해 '오르막'이란 힘든 시기가 있다면 '내리막'이란 행복한 시기가 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7개월 효광원 생활이 제 인생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마음 깊이 남아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내일 집에 갈까요? 그건 아마 제가 한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저는 가능성을 보았고, 꿈과 잠재력을 찾았으니 사회로 나가면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광원에서 제 아버지 같았던 중훈 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못난 저 때문에 흰머리 더 나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7개월이란 시간 헛되지 않고 꿈을 찾아 나갈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느끼며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023 기획사업

01

사업명 **효광원 보호자교육**

지원기관 효광원 자체

사업목적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인 보호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의 역할 회복과 재구조화를 통해 아동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

사업기간 2023년 1월-12월

사업대상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대상자(보호 청소년과 보호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 (보호 청소년과 보호자)

02

사업명 **밥상머리 작은기적 요리교실**

지원기관 효광원 자체

사업목적 비행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요리 방법을 습득하여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함으로 건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생계를 책임지는 바쁜 부모를 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

사업기간 2023년 1월-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보호소년

2023년도 기획사업입니다.

03

사업명 **기차여행**

지원기관 대전가정법원

사업목적 보호소년의 타 지역 관광을 통한 현장학습 및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아동의 정서 함양 및 긍정적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

사업기간 연중 1회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보호소년

04

사업명 **동·하계 방학 레포츠데이**

지원기관 배재에코브릿지협동조합

사업목적 보호소년의 레포츠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와 새로운 경험 습득.

사업기간 2023년 동·하계 방학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보호소년

주요사업

춘계·추계 체육대회

효광원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유도하고 동료들간 협동심 배양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도모. 이를 통해 사회적응 능력 훈련과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함.

연간 2회 실시

국토종단 및 횡단

심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의 자세 등을 배워 보호치료 목적 달성에 기여함. 동시에 입소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연간 2회 실시 2박 3일(5월, 10월)

겨자씨 검정고시 학습

충남대학교 대학생자원봉사자들로 구성 된 입소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대비 학습지도 프로그램.

연중 주 1회

보호자교육

각 법원에서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입소 아동들과 그들의 보호자가 효광원에서 진행하는 보호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 이수 명령과 함께 가족관계 회복을 기하는 프로그램.

월 1회 8시간 실시

집단상담

도박중독 치료집단

도박 폐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밖 고위험 청소년에게 도박 행동 인지, 정서, 욕구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는지 활동을 통해 경험하도록 안내하여 퇴소 후 고위험 도박 상황에 올바른 대처를 하는 기본 역량강화프로그램.

연간 4회 실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 'HI프로그램'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진로고민을 해결하고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취업 지원이 되도록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연간 2회 실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두드림(Do Dream)

꿈·드림, '꿈을 드림' (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연간 3회 실시

음악·크로스핏 집단치료 프로그램

음악적·체육적 환경에서 제시되는 과제를 통해 사회규칙을 학습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그룹원과 협동하며 과제를 완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과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연간 8회 실시

국토횡단 5기

2023년 5월 9일~11일(3일간)
국토횡단 5기 "독도에서 백령도까지 가온길을 찾아서" 프로그램 진행

속초시청에서 인제군청까지 약 72km 코스를 아동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여 결여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의 자세를 익히는 시간이었다.

국토횡단 5기 **인터뷰**

이○서

Q 국토횡단 프로그램에 어떠한 심정으로 다녀오셨나요?

구0km라는 거리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 긴 거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걸으면 금방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엄청 힘들 거라는 이야기에 사실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첫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온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아직 1/3 밖에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절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주변에 응원 덕분에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Q 국토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많은 방황을 하였습니다.
이번 국토횡단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고 배운 부분은 끈기와 인내심 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냥 하기 싫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였지만 이번 국토횡단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기 할 수 없었고 힘든 순간에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저를 완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회에서도 이번 경험을 통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을 할 것입니다.

Q 걷는 도중 덥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국토횡단 중에 겪은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제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무엇보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함께 국토횡단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독려와 옆에 있는 효우리들의 응원과 격려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최○니

Q 국토횡단을 하면서 얻었던 교훈은 무엇인가요?

"게으름은 천천히 움직이므로 가난이 곧 따라 잡는다." 프랭클린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돈과 관련된 명언 같기는 하지만 제가 국토횡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걷는 자는 정상에 빠르게 올라가 쉴수 있지만 힘들다고 쉬고 천천히 걷는사람은 쉴 시간이 없어서 더 힘든 시간이 되었을 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Q 국토횡단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번 국토횡단 프로그램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저의 나약한 모습처럼 쉽게 포기 하지 않고 열심히 힘을 내어 한발 한발 나아갔습니다. 결국 완주를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하여 저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차여행

2023년 6월 21일 대전가정법원과 코레일(서대전역)이 함께하는 "해피트레인" 프로그램 진행

재원아동 및 교사, 대전법원 판사 및 관계자, 코레일 직원이 함께 충청북도 단양 지역 일대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담삼봉 보트 탑승, 고수동굴 방문, 만천하 스카이워크 관람 순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아동의 정서 함양 및 긍정적 인식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시간이었다.

기차여행 **인터뷰**

장○영

Q 기차여행 프로그램은 어떠셨나요?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막상 가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단양이라는 지역도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냥 막연한 시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보니 다양한 체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지만 효광원을 벗어나 기분전환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기차여행 프로그램에 다녀오신 소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과 견학 등으로 더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좋지 않은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 판사님, 조사관님, 코레일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우

Q 기차여행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효광원에서 선생님들 하고만 가는 것이 아니고 판사님, 조사관님, 코레일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자리이다 보니 많이 딱딱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편안하였습니다. 저희 의견도 다 들어 주시고 하고 싶은 체험도 적극적으로 시켜주시고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판사님과 조사관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요?

대체로 효광원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효광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판사님과 조사관님께서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Q 기차여행을 다녀온 소감은 어떻게 되시나요?

건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 적이 제 삶에서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복귀를 하게 되면 건전하고 재미있는 여가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효광원 선생님, 판사님 감사드립니다.

템플스테이

2023년 4월 6일~4월 7일
청주지방법원과 공주 마곡사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프로그램 진행

청주지방법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지원으로 재원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진행하였다. 사찰의 문화를 배우며 재원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자기 내면의 순화 및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 템플스테이 활동을 통하여 재비행을 예방하고 퇴소 이후 아동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 **소감문**

Q 템플스테이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나요?

템플스테이라는 단어 자체도 저에게는 많이 생소하였습니다. 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마곡사라는 곳에서 신기한 부분도 많이 보았고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사회에서라도 불교에 대한 부분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강○성

Q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절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건강한 밥을 먹는 것이 조금은 어려웠지만 튼튼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계단을 걷다 보니 땀도 많이 나고 몸이 힘들기도 하였지만 다 해냈다는 부분에 대해 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우

Q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점이 있나요?

기도를 하면서 불교에 대한 문화가 이해되었습니다. 사찰의 문화를 배우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면서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퇴소 이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서○준

보호자 캠프
소감문

장○영 보호자

오랜만에 아이와 가장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으며 아직은 표현이 서투르지만 수지에니어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영이의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최대 3번까지 참여시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여 아이가 퇴소하면 아버지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전달받아 진행 예정입니다. 보호자 교육이라 하여 형식적인 교육일 거로 생각하며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한분 한분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염려했던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들의 열정만큼 저희 도영이가 더욱더 건강한 청소년으로 변모되어 가정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희 보호자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질주하던 아이가 효광원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그 마무리가 부모교육이어서 반신반의하며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영상과 수지에니어그램 등 짜임새 있는 내용에 놀랐고 오랜 시간 집중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아이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이었지요. 수지에니어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와 오랜만에 긴 시간 함께 보낸 날이었고, 마치 오래전 평범했던 아이와 여행을 떠났던 그 어느 날 같았습니다. 또 아이에 대해 그리고 저에 대해도 다시 한번 알아가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지에니어그램은 상황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결과가 가능하기에 퇴소 후 가족 상담을 추천받아 다시 한번 참여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이는 퇴소하고 저희에게로 돌아오는 날이 다가오네요.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이 많았지만,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에게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믿어주고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부모인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듯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예쁜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1월-6월

2023년도 상반기 후원금 내역

조순옥, 이형석, 관저1동 성당, 손연경, 서충삼, 변해영, 이성훈, 윤경희(급전), 정규순, 강아영, 가마치통닭(박영자). 안상길, 김성희, 이강호, 소명희, 박미라, 주혜진, 신혜영, 오세정, 김민석, 판암동 성당, 이협수(이앤장치과), 김현수(행복한수치과), 홍준원(오페라치과), 손병재, 코밴아이러브피플, 장윤정, 사단법인 정, 최종익, 강만식, 김성희, 한국아동복지협회, 김민석, 대전아동복지협회, 이주희, 김왕수, 백인영, 이강호, 미리내수녀원, 홍북성당, 월평동성당, 신평 성당, 장도영, 대전존타4클럽, 김철희, 김영환, 남주연, 조영숙, 손원병, 박은미, 손병재, 안옥미, 이형석, 박현희, 정규순, (재)행복한나눔, 심재광, 인텐스 트레이닝, 손연경, 고용노동부, 성민태, 성백찬, 바이킹뷔페, 정규승, 배성환,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아동권리보장원, 김현, 이룸스틸(추성호)

2023년도 상반기 후원물품 내역

투썸남대전IC, 춘천지방법원, 천양원, ㈜흥일식품, 대구가정법원, 대전동구보건소, 상인축산주식회사, 산내동주민센터,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대전광역시교육청, 최민규, 고용노동부, 동구청, 계룡건설, 이강순, 매화떡집, 가오동성당, 최명자, 의정부지방법원, ㈜밀팡, 부산신자, 하나로마트 산내농협본점, 합덕 선교사, 정류장약국, 대전아동복지협회, 조영숙, 성우보육원, 대전보호관찰소, 문창동성당, 서울가정법원, 김대경, 오리온재단, 부산가정법원, 이찬원, 부여규암성당, 대전교구사회복지국, 김순자, 성심당, 조두희, ㈜아너스금융서비스, 코레일사회봉사단, 김익중, 수원가정법원, (사)한국자원봉사 실천협회

자원봉사자

피아노: 한진우, 김안진

학습지도: 엄상용, 양순일, 최선희, 이진희, 박해숙

겨자씨 공부방: 한진규, 이상원, 정수원, 김규연, 박하빈, 김다민

이용 자원봉사자: 문재식, 황종섭, 송민아, 임재명, 육용례, 김영화, 박선아, 김진헌, 진달래, 이미경, 이영순, 이은정, 장하원, 김건희, 홍선희, 강선희, 박혜영, 윤중현, 김영화, 손서윤, 이영진

후원금 지정보고

수입 총 57,747,550원

구분	내용	금액
후원금 수입	지정 후원금	11,256,000
	비지정 후원금	28,485,072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18,005,860
잡수입	기타예금 이자수입	618

지출 총 39,876,232원

구분	내용		금액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피복비	661,600
		의료비	2,040,530
		수용기관경비	671,240
		직업재활비	1,033,130
		특별급식비	2,084,400
		연료비	500,000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12,436,830
		교육 재활사업비	114,000
	잡지출	잡지출	1,202
		반환금	13,503,870
사무비	기타운영비	기타 후생경비	498,000
	운영비	제세공과금	2,125,160
		여비	830,000
		수용수수료	1,253,890
		공공요금	679,980
		차량비	508,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934,400

후원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453046-55-002444
(효광원)

전화문의 042-271-7053

내원접수 본 원에 방문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결연
- 청소년과 후원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청소년이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영위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아 퇴소 후 사회복귀 및 적응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자나 연고자가 없는 청소년에게 재원기간동안 면회 신청, 물품 후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노력봉사: 시설청소, 식사(간식)제공, 식당지원 봉사, 생일자행사지원 등
학습봉사: 교과목 및 특기 적성 교육
(기초학습, 검정고시, 대입수학능력시험 준비)
전문분야 봉사: 축구, 헬스, 농구, 음악, 미술, 미용,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체험 봉사: 문화 체험 초청

운동장 개방

개방시간 토요일 **15:00-17:00**
공휴일 **09:00-17:00**

준수사항
1. 오토바이,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출입금지
2. 애완견 출입금지
3. 화기 사용금지
4. 흡연, 음주, 취사, 고성방가 절대금지
5. 시설물 파손시 변상 조치함.

시설 사용시 시설장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2-271-7053**

전기충전 사용

개방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9:00**
공휴일 **불가**

준수사항
1. 자동차 전원 차단
2. 충전시 시설내 배회 금지
3. 화기 사용금지
4. 흡연, 음주, 취사, 고성방가 절대금지
5. 시설물 파손시 변상 조치함

찾아오시는 길

버스이용 108번, 501번, 511번, 512번, 513번 낭월차고지방향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하차

택시이용 대전역: 효광원 약 7.3km 택시비 약 8,500원
대전복합터미널: 효광원 약 9.9km 택시비 약 12,000원

자차이용 남대전 톨게이트에서 인동 방면 1.6km 전방 오른쪽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남대전 톨게이트 방면 1km 전방 왼쪽

보호치료시설 효광원